

(작성일준일 : 2022.4.22)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펀드코드: B1205)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중국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DB차이나본토RQFI증권투자신탁(H) [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중국본토A주식에 주로 투자)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국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에 대해 통화선물(환)거래로 **환위험 헤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CSI300 Index * 85%) + (Call * 15%)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대부분을 중국본토 A주식에 투자
- 상해거래소 내 개장한 **커창반** 주식에도 일부 투자 가능
- 홍콩과 국내에 상장된 A주식 관련 ETF에도 일부 투자 가능
-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운용위탁계약에 의거 **Fullgoal Fund Management [富国基金]**가 담당
-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자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함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1.66	0.70	1.76	1.780	280	469	668	1,097	2,3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C1)	없음	2.36	1.40	1.96	2.473	254	487	699	1,130	2,410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1.31	0.35	1.33	1.431	196	349	510	856	1,8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46	0.50	1.52	1.577	162	331	510	893	2,033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위험	모투자신탁은 중국본토 A주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인 중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모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의 투자금액 중 외화 가치의 80%±20% 수준에서 환해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국 달러선물(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달러화 대비 대상 통화의 환율 변동에는 노출됩니다. 환해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미국달러화 대비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거나, 헤지수단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하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6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한 수익자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매입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종류 C4수익증권으로 전환되며 판매보수는 1.4%에서 0.69%로 변경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 홈페이지 : www.db-asset.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조좌

효력발생일

2022.4.29

종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로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 후취형(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CDSC) 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 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입니다.
	무권유저비용(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합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집합투자기구, 법 제 9 조 제 2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

	등(F)	의 특별계정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